

불교임종간호 활동은?

첫 길을 팔아 자식을 키워낸 박모씨(66세, 여). 암 판정을 받고도 일을 계속하던 그는 배달을 다녀오던 길에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몇 달간 임종간호를 해주던 전옥자씨(수인봉사단 회장)의 휴대전화 번호. 개신교신도인 박씨의 자녀들에게 전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부처님의 길로 안내해드리려는 것이 자녀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나"고 설득했고, 자녀들도 그 뜻에 따라 어머니를 사찰에 모셨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사찰을 찾던 첫째 딸은 몇 달 만에 결국 어머니가 걸었던 '불자의 길'을 선택했다. 개종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밝혀준 불교임종간호를 통해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

'잘 사는 법(웰빙, Well-Being)'에 못지않게 '잘 죽는 법(웰다이잉, 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갖자는 '웰다이잉'은 그러나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작스레 시한부 인생이나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한탄하거나 분노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임종간호다.



▶ 임종간호란

터미널케어(terminal care)라고도 불리는 임종간호는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돕는 일을 말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hospice)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임종간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환자에게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돕는다. 임종간호의 목적은 의학적인 치료를 동반한 '수명 연장'이 아닌,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있다. 환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환자를 떠나 보내는 가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종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갈등을 풀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상담 등도 넓은 의미의 임종간호에 포함된다.

▶ 종교계 임종간호 현황

이미 개신교나 가톨릭 등에서는 임종간호 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1988년 가톨릭대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 데 이어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복지재단, 진각복지재단 등 종단의 복지재단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수호사 효림원(02-313-5124)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02-2202-5831), 조계종 포교사단(02-927-0588), 한희불교복지대학(051-203-9436) 등에서 '케어복지' '호스피스' 등의 이름으로 임종간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에게 고통 완화, 가족들에게 정신적 안정 도모 불교계, 임종간호 과정 운영 복지사 양성 적극 나서 자연스러운 불교 접촉은 장기적 포교효과로 연결

영천 은혜사와 김재 금산사 등은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케어복지관 불교특별전형 과정을 운영해 불자 사회복지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능행 스님이 운영하는 청주 정도마을은 1999년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고 임종간호를 펼치는 한편 간병 봉사자들을 양성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도 노인요양시설을 집중적으로 설립하며 임종복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임종간호와 포교

임종간호는 임종을 맞는 사람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종간호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종교적 믿

<가족들이 지켜야 할 사항>

- 1. 환자 앞에서 크게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환자 앞에서 우는 것은 환자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므로 늘 미소를 지으며 대한다.
2. 환자를 돌볼 때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평소 환자에게 쌓인 분노가 있더라도 분노 대신 인내와 인유,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한다.
3. 환자를 앞에 두고 몸 상태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환자의 기분을 잘 살핀다.
4. 환자는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답답하게 생각한다. 이때 가족들은 환자 입장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러 설득해야 한다.
5. 환자 앞에서 가족들은 가끔씩 대화를 삼가고 손님이 찾아올 때는 환자가 듣지 않도록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6. 임종이 가까워지면 환자의 방벽(실)을 청결히 한다. 머리 위에 수건 등의 물체를 걸어서 두거나 놓아두지 않는다.
7. 환자가 맑은 정신일 때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임종 때는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환자가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염불을 들려준다.

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임종자 스스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가족들과의 묵은 오해나 갈등을 풀고 마음을 치료함으로써 임종자와 그 가족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임종 후에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고인을 만난 보낸 아픔을 다독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아픔을 치유하도록 돕는다.
여수형 기자



47. 차(茶)의 전승(傳承)

인간은 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망으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빠르고 쉽게 변화되는 것 속에서 전통은 흔히 낡은 것, 지나간 역사쯤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통은 환경과 습관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그 지역의 풍토와 정서에 어울리는 숨구멍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옛 것을 그리워하며 집착하게 된다. 원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형이 유지된다. 전통은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
한국의 음다풍(飲茶風)은 초의 선사 이후 각 사찰과 해남 대흥사에 거거했던 스님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초의가 평생을 보낸 대흥사

응송·초의 선사 문헌 수집 등 차 전승 노력 선종 제다법 연구...박동춘에 다도 전수도

는 우리 차 문화의 산실이다. 역사적으로 볼우했던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차를 이어온 노력 이 있어 우리 차는 아주 조용히 이어져 왔다. 응송 박영희(1892~1990) 스님은 1911년 출가하여 80여년을 대흥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 당시는 초의 스님이 열반한지 45년, 법해 스님이 열반한지 10여년이 흐른 뒤 대흥사에는 초의 다풍(茶風)이 살아 있었다. 응송 스님은 초의 문헌인 <동다송>과 <다신전>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초의의 제다법과 차의 정신을 연구하였다. 김운학 스님은 "지금 우리가 초의를 이야기 하고 우리 차의 전통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응송 스님의 공로이다. <동다송>을 우리의 다경(茶經)으로 자랑하는 것도 응송 스님이 필사본을 보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응송은 대흥사로 출가 전 어린 시절부터 소년의병 활동을 하는 등 한 일 투쟁에 앞장섰다. 3.1운동을 맞



해남 대흥사 선종 암자인 백화사에서 응송 스님(당시 94세의 망종한(中)중).

은도는 60~70도로 식히는 일반 다법이 아니라 95도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우려는 열탕을 고수하였다는 야생자는 본래 고온에 잘 견디며 일본종의 차잎은 고온에서 문드러지기 때문이다. 우리 차는 제다 방법 및 우려마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79년에 인연이 된 박동춘에게는 무공(無功)이라는 호와 함께 다도 전승(茶道 傳授)을 내린다. 다양한 역사 속에서 차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흥화와 산엄화라는 보편성 때문에 쉽고 간편한 획일적 사고로 차의 원형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때 선승전 전통 차 문화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속성비결!! 책심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과정: 기초과정, 전문가과정, 맥진법, 사암침술, 즉효요법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삿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살승위주 강좌
개강: 2007. 9. 3(월요일) / 9. 8(토요일)
매주 금요일 임상 및 개인지도(무료)
매주 화요일 무료 공개강좌
매하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 과정, 맥진전문가 과정
사암침술 학회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축봉산 원호대
● 법 명 : 석마(김정곤)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0번지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에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이 곳 공원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 나이: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학력: 고졸이상
◆ 나이: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6개월 교육후 수계(에비스님)
◆ 문의: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